

2024 우수후기 자료집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찾아가는 학교교육



“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소개문

청소년 디지털 시민 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 공간 속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카카오임팩트, 푸른나무재단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Contents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01

2024년 찾아가는 학교교육

찾아가는 학교교육 소개	06
숫자로 보는 2024년	07

02

1학기 우수후기

인천서화초등학교 2학년 10반	10
전남 봉향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1
대전 새일초등학교 5학년 2반	12
전남 순천북초등학교 5학년 2반	13
경기 용인한빛초등학교 5학년 3반	14
제주 대정초등학교 5학년 3반	15
경기 중흥초등학교 5학년 4반	16
충북 장락초등학교 6학년 1반	17
경기 산양초등학교 6학년 2반	18
대전도안초등학교 6학년 6반	19

03

2학기 우수후기

서울신상계초등학교 1학년 1반	22
서울서원초등학교 2학년 6반	23
대구들안길초등학교 4학년 3반	24
서울언남초등학교 5학년 2반	25
경기 양벌초등학교 5학년 5반	26
대구세현초등학교 5학년 5반	27
경기 양곡초등학교 6학년 1반	28
전북 전주화정초등학교 6학년 1반	29
대전만년초등학교 6학년 2반	30
전북 전주자연초등학교 6학년 6반	31

01

청소년의 곁에는 늘 푸른나무재단이 있습니다.

PART 1

2024년 찾아가는 학교교육

찾아가는 학교교육 소개
숫자로 보는 2024년



+ 찾아가는 학교교육 소개

1. 교육 목적

- Born Digital 세대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디지털 핵심인성을 갖추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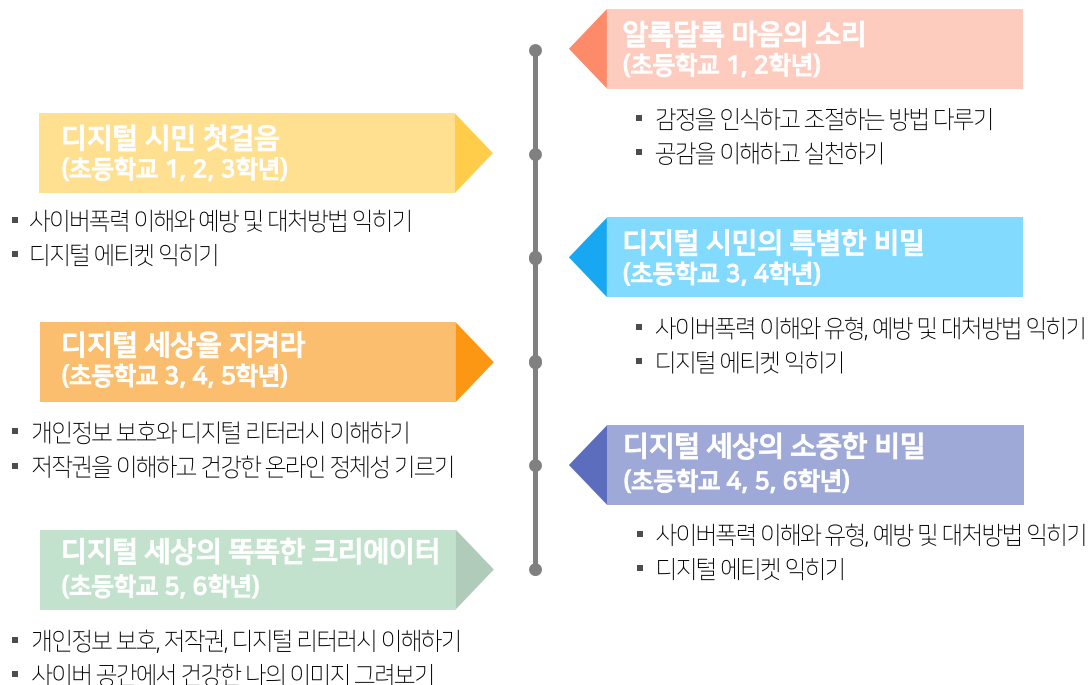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시민 교육 제공을 통한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강화 도모

3. 주요 기능

맞춤형·놀이형 교육	사이버폭력 예방
협동하는 즐거움	전문강사 파견

4. 학년별 추천 커리큘럼

청소년 디지털 시민 교육 '찾아가는 학교교육'은 학급 단위로 진행되며, 학년별 디지털 사용의 정도 및 학습 인지능력을 반영한 프로그램 주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학년은 1차시당 40분을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5~6학년의 경우 학생 중심 활동을 위해 1~2차시 통합형 교육(80분)으로 진행합니다.



숫자로 보는 2024년

교육 운영



	출강 학교 수	649개교
	교육 학급 수	2,464학급
	수강 학생 수	51,109명
	활동후기 게시글 수	141건

교육 만족도



	교육 교안 및 교구	97.2%
	전문 강사 강의력	98.9%
	교육 재참여 의향	94.4%
	교육 효과성	98.1%

02

청소년의 곁에는 늘 푸른나무재단이 있습니다.

PART 2

1학기 우수후기

인천서화초등학교 2학년 10반

전남 봉황초등학교 3학년, 4학년(합반)

대전 새일초등학교 5학년 2반

전남 순천북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 용인한빛초등학교 5학년 3반

제주 대정초등학교 5학년 3반

경기 중흥초등학교 5학년 4반

충북 장락초등학교 6학년 1반

경기 산양초등학교 6학년 2반

대전도안초등학교 6학년 6반



"즐겁고 신나는 디지털 세상 여행으로 디지털 시민 꿈나무를 키우는 시간"



첫 번째 여행지인 와이파이트로 여행을 떠나자 아이들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합니다. 와이파이트 초등학교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세 명의 등장인물의 마음을 알아보고 와이파이트 초등학교의 친구들을 위한 백신을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 첫 번째 미션이 끝나자 여권에는 도장이 하나 찍혔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에서 미션도장을 받자 진짜 여행을 다니는 기분인 모양인지 들떠서 발표도 학습지 풀이도 더 열심히 합니다. 교재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 해도 되냐고 묻는 의욕 넘치는 목소리들로 교실이 가득 찼어요.

두 번째 여행지는 키보드리아입니다. 샬롯달록 홈즈의 이름만 들어도 아이들은 웃음이 나는 모양입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었어요. 배려, 존중, 공감, 아름다운 말... 평소에 그렇게 가르쳐도 쉽게 기억되지 않던 덕목들이 재미있는 수업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게 보였어요. 디지털 에티켓이란 어려운 말도 금방 찾아내는 아이들의 모습에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모둠별 발표 목소리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두 번째 여행도 모두 마치고 도장을 받았어요. 드디어 비밀의 상자를 열 수 있게 되었지요. 상자를 열 때 아이들의 환호 소리가 교실을 찌렁찌렁하게 울렸답니다.

여행을 모두 마치니 이제 디지털 시민이 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실감이 납니다. 디지털 시민 인증서도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수업을 지켜보며 함께 지도에 참여했던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에티켓이란 내용이 2학년 아이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사이버 폭력 예방 부분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학년 아이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육자료도 고학년과 청소년 위주라 실제 수업에 활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교재와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등장인물의 감정 알아보기, 표정 그리기, 하고 싶은 말 표현하기 등은 2학년 국어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내용이라 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접근한 만큼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이고 후속지도도 더욱 편해질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좋은 자료로 아이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여행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 전남 봉황초등학교 3, 4학년(합반) 이미선 선생님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의 면 단위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3학년 담임 교사 이미선입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디지털 시민 교육은 학년별로 주제가 나뉘어져 있어 매년 받아도 아이들의 교육 내용이 겹치지 않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학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었기에 이 교육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올해 3-4학년 학생들은 디지털 세상을 지켜라 라는 주제의 교육을 신청하였는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피싱, 저작권에 대한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한창 유튜브와 틱톡에 빠져 살며, 서칭을 많이 하는 3-4학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구요. 어렵다면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카카오페이, 종아르웨이 라는 곳을 여행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보자! 라는 컨셉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소소한 부분이지만 돈데기리기리 돈내꺼만, 스티븐 피싱 잡았스 이런 이름으로 스토리텔링한 점도 재미있기도 하고 3-4학년 학생들도 너무 무겁지 않게, 굉장히 몰입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수업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이 질문이 많고 뜬금없는 말도 많이 했는데 수업 내내 웃으시면서 다정하게 대답해 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설명하는 학습지에 좋아요 스티커가 적게 붙어 신경 쓰여 하는 친구들도 소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 잘 보듬어 주시는 모습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더불어 수업에 사용되는 수업 자료들, 교구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여권, 워크북 등) 짜임새도 훌륭하고, 설명도 잘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고, 특히 비밀의 상자 같은 경우는 교육이 끝난 후에도 학급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Chat GPT가 계속해서 더 나은 버전으로 개발되고 있고,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지금!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 선생님들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력 추천합니다~^^

"신청하길 너무 잘했다! 내년 우리반 아이들과도 꼭 해야지!"

요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분명 편리하고 좋은 점도 많지만 요즘 아이들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도 스마트폰입니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하여 아이들이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직결되는 단톡방 이용, SNS 활용에 관한 예절은 아이들에게 매번 교육하지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느낌이라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디지털 시민 교육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구나 싶어서 얼른 신청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신청하길 너무 잘했다! 내년 우리 반 아이들과도 꼭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알림장에 적어주는 내용들이지만 아이들은 그저 알림장에 글씨 연습하듯이 적고 넘어가던 내용을 재미있게 흥미 있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오늘 1~2교시에 연차 시로 수업해 주셨는데 수업 시작과 함께 아이들 책상 위에는 여권과 워크북이 놓였고, 아이들은 저마다 눈을 반짝이며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 집중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오늘 이야기를 나눌 내용이 담긴 짧은 영상으로 수업을 시작하셨고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밀의 상자를 열기 위해 아이들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예절에 대하여 이해하며 마음에 다짐하고 자신의 생각을 손바닥에 적어보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손을 그리며 문구를 직접 생각하여 적었는데, 생각보다 진지한 내용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권에 스탬프를 찍으며 여행을 마무리하고 비밀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과연 비밀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하여 집중하는 순간 귀여운 키크링이 짜잔! 아이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며 매일 보고 자신의 다짐을 기억하기에 너무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디지털 세상의 예절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신 오늘 교육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선생님들 중에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빠르게 키워주는 디지털 시민교육!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디지털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가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 공문으로 사디세 프로그램이 안내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 수준에 꼭 맞는 아기자기한 교재와 도구, 기념품까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 학년 선생님께 곧바로 소개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의 일주일 전쯤 강사님으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아 우리 반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노란색에 튼튼한 사디세 교재교구 택배 상자를 받아봤을 때는 더욱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강의 날이 되었고, 마침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신다는 친근한 강사님과 함께 '디지털 시민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워크북을 통해 함께 미션을 해결하고, 미션을 해결할 때마다 여권에 사증 도장을 쿵쿵 찍으면서 아이들의 흥미도 쿵쿵! ㅎㅎ 강의 내내 시선을 강탈하던 비밀의 상자도 아이들의 집중력을 끝까지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답글을 적는다거나 손바닥 다짐을 진지하게 적는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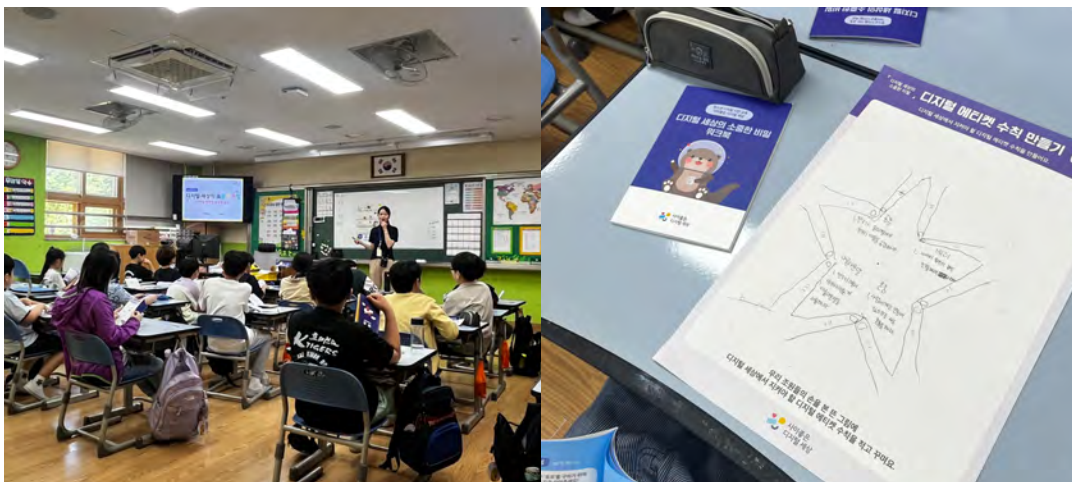
마침내 수료한 우리 반 디지털 시민 인증서 속 내용들처럼 우리 반 학생들 모두 앞으로 꼭 디지털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가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업 기록: <https://blog.naver.com/dndus3356/223487334757>)



+ 경기 용인한빛초등학교 5학년 3반 김세형 선생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주제를 다루며,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내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강의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침해했을 때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대한 교육은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했습니다. 강의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허위 정보 유포, 디지털 발자국의 영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올바른 온라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례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교육이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의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그 중요성, 그리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배우며,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손 그리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던 점도 이 강의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디지털 윤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내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디지털 윤리 교육 강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올바른 윤리적 판단과 책임감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아이들의 디지털 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디세_찾아가는 학교교육이 전국의 교육현장에 빛나길 바란다."



우리 반은 "디지털 세상의 소중한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디지털 에티켓 수칙 만들기' 활동은 단순히 수칙을 만들고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커다란 도화지에 아이들이 자신들의 손바닥을 직접 따라 그리고 그 안에 수칙을 적는다는 독특한 형식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였다. 규범의 내면화를 신나는 활동으로 수행한 것이다. 서로 손바닥을 뽀뽀하게 따라 그렸으며 장난을 치고, 손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연필이 간지럽다며 웃고, 즐거운 배움의 소리로 떠들썩했던 수업 현장을 지켜보는데 기분이 참 좋았다.

우리 희윤이는 "손바닥을 그리며 에티켓 수칙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수칙이라 더 실천하기 편할 것 같다."고 한다. 손바닥 따라 그리기가 많은 아이들에게 인상적이었던 점은 우리 민서의 글에서도 드러난다. "디지털 에티켓 수칙 만들기" 활동은 종이에 자신의 손을 대고 따라 그리는 것인데 그 손안에 존중, 배려, 공감 등을 적는 것이었다. 나는 그중에서도 공감을 썼는데 글을 다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 재밌었다"고 쓴 민서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은 너무 재밌었다. 특히 손바닥 그리기가 가장 재밌었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한 번 참여하고 싶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평소에도 진솔하고 깊은 생각을 글에 담아내곤 하는 우리 아은이는 "솔직히 나는 수업이 조금 지루할 줄 알았다.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고 여권을 주었다. 여권에 도장 2개를 찍으면 비밀의 상자라는 것을 열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니 지루하지도 않고 강사 선생님도 재밌으셔서 오히려 아주 재미있었다"라며 꼭 동료 교사가 남길 법한 후기를 공책에 남겨 선생님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수업에 오신 선생님이 좋았다"라고 쓴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이는 담임교사 역시 공감하는 바이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도 가끔 디지털 공간에서의 갈등을 만들어 와서는 부모님의 마음과 담임교사의 머리를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의 '여권'과 아이들의 손바닥이 수놓인 활동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배우고 다짐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상기하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 규민이는 약속했다.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디지털 공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디지털 예절들을 배워서 앞으로는 그 규칙을 잘 알고, 실천할 것이다"라고 말이다. "사이버 폭력을 잘 몰랐는데 조금 더 잘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 속상하거나 우울한 친구들이 있을 때 공감을 해주고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비밀 상자를 열었을 때 키링, 젤리 등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여권에 도장을 찍어서 좋았다. 도장을 받으니 뿌듯했다"라는 우리 하율이의 다짐도 글쓰기 공책을 살펴보면 담임교사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 후기에 모두 옮겨 적을 수 없지만, 이렇게 아이들 모두가 표현 방식의 능숙하고 서툰 정도는 다름이전정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배움의 지점에 도달했음이 글쓰기 공책 곳곳에서 드러나 보람찼다.

첨단 기술과 건강하게 공존하는 올곧은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반짝이는 가치의 씨앗을 서울부터 제주까지 심어주고 있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찾아가는 학교교육이 앞으로도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빛나길 바란다.

"디지털 에티켓 수칙을 만들고, 다함께 지킬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 매일매일 디지털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떠나는 미션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미션 활동을 해결해 가며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짜인 구성으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었고, 몰입하여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에서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갖추고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침 저희 학교에서도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의 상황에 딱 맞는 주제와 내용이라서 더욱 만족감이 컸습니다.

5학년 수준인 ['사이좋은 디지털 시민' 이야기]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종류,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 디지털 에티켓의 개념과 실천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제공된 워크북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뉴스를 가지고 팩트 체크하는 활동을 통해 이전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둠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디지털 에티켓 수칙을 만들고 우리 학급이 다함께 지킬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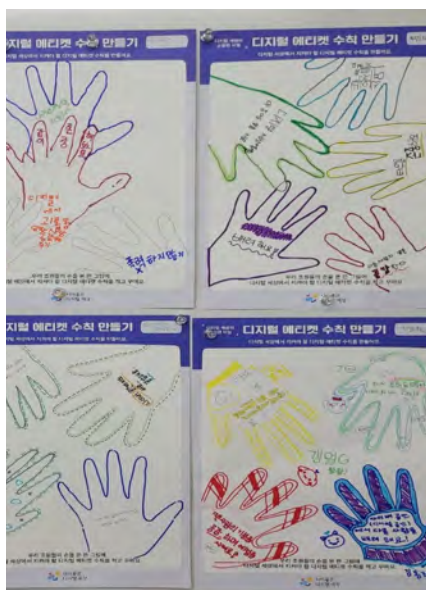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의 소감도 공유합니다.

J: "모둠 친구들과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해서 즐거웠고, 디지털 세상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어요!"

K: "디지털 세상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고 모둠 활동까지 해보아서 좋았고 재미있었습니다!"

P: "모둠 활동도 좋았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C: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고, 서로 협동해서 하는 활동들이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 충북 장락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진영 선생님

"좋은 자료와 집중력 있게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 탄탄한 내용까지"



누구보다도 핸드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지만, 정작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며,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SNS,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문제들로 3월, 4월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삶 속에 이미 뿌리내린 인터넷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사의 추천으로 이번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교육 전부터 준비물과, 담당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수업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수업은 2차시(80분)로 학생들이 여권으로 디지털 여행을 떠나며 인증 도장을 받아 디지털 시민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권을 나누어주셔서 학생들이 정말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여권의 내용도 알차더라고요! 감정 및 공감의 내용을 담은 보드게임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알짜 내용만이 담겨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생각과 행동을 적는 수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제시로 학생들이 몰입해서 공감할 수 있었고, 따라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요새 문제가 되는 실질적인 문제 상황이 있어 학생들의 삶과 맞닿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며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모듈별로 크리에이터 SNS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민으로 거듭난 새싹반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께서 비밀 상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상자에는 젤리와 사디세 키링이 담겨있었는데, 학생들이 노력해서 얻은 선물이라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좋은 자료와 집중력 있게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탄탄한 내용까지! 뽐혀서 정말 좋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디지털 에티켓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신청한 후부터 오매불망 기다려 온 사.디.세 수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수업 날짜가 되기 며칠 전부터 문자 메시지와 전화 연락으로 담임교사와 소통하고, 수업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수업에 필요한 물건을 점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수업을 해 주기 위한 푸른나무재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수업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학교 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업 내용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는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마저 너무 좋은 선생님께서 유쾌하고 다정한 태도로 아이들의 수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어려운 단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의도하신 수업의 방향에 따라 천천히 배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정의하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공간보다 방관이 일어나기 쉬우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쉽게 바뀌는 등 사이버 폭력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유익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보다 쉽게 방관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타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을 지나치는 내 모습이 방관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납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방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교실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뉴스 형식으로 쓴 글을 읽으며,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했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교사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학생들이 읽고 고민하며 해당 유형의 폭력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 속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권이라는 작은 소품이 더해진 것만으로 아이들이 수업 내용에 더 큰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는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수업이었고, **적절한 소품과 활동지, 적절한 시간 분배 등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좋은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푸른나무재단의 디지털 에티켓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 대전도안초등학교 6학년 6반

박지수 선생님

"2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도안초등학교 6학년 6반 담임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푸른나무재단>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무료 교육인데도, 전문강사님을 파견해 주시고, 교구와 기념품을 제공해 주신다니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겠죠!! 동학년 선생님들도 모두 참여 신청을 원하셨는데, 아쉽게도 모두 되진 못했고, 저희 반은 정말!! 운 좋게 참여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자료를 먼저 학교에 보내주셔서, 푸른나무재단에서 이 교육을 얼마나 꼼꼼히, 철저히 준비하시는지 알고 감탄했습니다. 교육 당일, 강사 선생님도 수업 전 교실에 일찍 도착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점검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은 1,2교시 블록타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끝까지 재미있게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6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수업을 정말 잘 이끌어 주셨고,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자료와 활동도 정말 좋았습니다. 수업은 사이좋은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여행을 테마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때 필요한 덕목을 살펴보고,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고쳐주면서 첫 번째 미션 완료! 그리고 <똑똑한 크리에이터 SNS 만들기>를 모둠별로 활동해 보면서, 두번째 미션 완료! 저희 반 25명의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둠별 SNS 만들기에서, 수업에서 배웠던 덕목들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아이들 모두 덕목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03

청소년의 곁에는 늘 푸른나무재단이 있습니다.

PART 3

2학기 우수후기

서울신상계초등학교 1학년 1반

서울서원초등학교 2학년 6반

대구들안길초등학교 4학년 3반

서울언남초등학교 5학년 2반

경기 양벌초등학교 5학년 5반

대구세현초등학교 5학년 5반

경기 양곡초등학교 6학년 1반

전북 전주화정초등학교 6학년 1반

대전만년초등학교 6학년 2반

전북 전주자연초등학교 6학년 6반



"디지털 시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담임교사입니다. 우리 1학년 1반 친구들이 참여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소감을 작성합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알록달록 다양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서 이해하기'였습니다. 학생들은 '감정을 잃어버린 이모티코니아'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 비행기'를 완성하여 이모티코니아에 감정을 전해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링블링섬'의 공감 나무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당일, 강사 선생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신상계초 학생들의 유익한 교육 활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셨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흥미진진하게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강사님의 유익한 교육 활동 지도에 학생들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감정 비행기를 타고 이모티코니아로 가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강사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공감 나무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강사 선생님의 차분하고 열정적인 수업 진행 덕분에 학생들이 집중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감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반이 이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미를 끌만한 캐릭터와 미션 수행으로 몰입도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올해 저학년을 맡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컴퓨터나 태블릿 등 디지털 관련 수업은 저에게 무언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기에 쉽사리 시도하지 못했는데 학년 말이 되어 아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떤지, 새로운 방식의 수업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푸른나무재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초반의 집중도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강사님께서 딱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용어와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흥미를 끌만한 캐릭터와 특별한 미션 수행으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했는데도 꼭 몰입도 높은 수업이 되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네티켓을 일상생활의 에티켓과 연결 지어서 아이들의 답변을 이끌어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미션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니 아이들이 성취감을 더욱 느껴서 뒤로 갈수록 더욱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외부에서 교육을 오시면 사실 딱 학년 수준에 맞게 진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오신 강사님께서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내년에 또 신청하고 싶은 마음 한가득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와 배움, 모두 있었던 사.디.세 활동이었습니다."



학기 초 학교 담당자 선생님께 디지털 시민 교육 신청 안내를 받으면서 처음 들어 본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공문을 살펴보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학교교육에, 연수에, 연구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더라고요! 교육 내용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후기도 살펴보니 엄청 재미있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나...? 신청 후 반 포기 상태로 입고 살던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는데.. 바로 선정이 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우와...이런 전국 단위 추첨에 덜컥 되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자랑을 하고, 교육받는 결재도 올리고^^ 신나더라고요!

교구도 택배로 받았는데, 일정에 맞춰 안내해 주시고, 그즈음에 **강사 선생님께서** 따로 연락 주시더라고요. **엄청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바쁜 학교 일정 속에서도 잘 준비할 수 있었고요. 학생들도 우리 반이 선정되어 특별한 수업을 한다고 들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망의 교육 당일!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신다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는데, 일찍부터 오셔서 교실도 꾸미고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수업은 2시간 동안 **디지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 형식으로 이뤄지는 수업**이었습니다. 뭔가 수업 시간에 혼란(?)스러워질까 봐 게임 수업은 되도록 지양해오고 있는 저였는데, 엄청 화려한 교구로 게임을 진행하시는데도, 학생들이 신기하게도 차분하게 집중해서 즐겁게 참여하더라고요. (제가 이 뒤로... 늦었지만 많은 걸 깨닫고 학생들이랑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께서 차분하시고 흡입력 있게 교육하시는데 전달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뛰어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4학년 수준인 카카 오이슬란드를 지켜라(띄어쓰기 주의) 활동을 하였는데, 제목부터 재미있더라고요. 주사위를 굴리고 칸에 들어갈 때마다 제시되는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고 세이프 카드를 붙였는데,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이 어려워 보였는데도 강사 선생님께 배운 대로 적용해서 척척 답을 맞히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떠나는 여권에 도장도 찍고, 저작권 홍보 게시물도 만들면서 학생들이 배운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실제 삶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언제 시간이 빨리 지나갔냐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재미와 배움 모두가 있었던 사.디.세. '디지털 세상을 지켜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되는 첫 발걸음을 잘 내디딘 것 같습니다"

5학년 저희 반 학생들은 아직 SNS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디지털 선도학교 학생으로서 1인 1기기로 많은 수업 시간에 태블릿을 활용하곤 합니다. 디지털 사용 능력은 출중하나 디지털 윤리 의식, 시민성이 부족한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조사에 첫 GPT 내용을 그대로 베낀다던가 캡처한 사진을 아무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디지털 시민성을 길러주기 위한 좋은 교육으로 사디세에서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수업 전 사전 안내를 꼼꼼히 해주시고 변동 사항은 없는지, 교구재는 잘 도착했는지 여러 번 확인해 주셨어요. 교구재도 너무 아기자기 예뻐서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많은 내용을 다루느라 2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빨리 지나가서 학생들도 지루할 틈 없이 알차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저작권 보호, 디지털 정체성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꿈이 유튜버인 친구들도 정말 많은데 직업윤리의식 등 진로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디지털 수업에 앞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께도 강력 추천드렸어요. 저도 디지털 능력을 뽐내며.. ^^ 유튜브 영상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학생들도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되는 첫 발걸음을 잘 내디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디지털 여행으로 초대받은 저희 반 23명은 수업의 시작부터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해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여권과 워크북을 나누어 주실 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려 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밀의 상자"를 보여주시고 살짝 설명해 주셨을 때는 아이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교시 "디지털 세상 비밀의 시작"인 사이버 폭력을 설명해 주실 때에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미 알고 있음을 뿌듯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에서는 본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강사님의 설명에 온전히 집중하여 열심히 듣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니 아이들이 이해하고 몰입하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북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을 같이 읽으며 중요 내용을 정리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해 보면서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2교시 활동 위주의 수업에서는 기자가 되어 세상의 뉴스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였고, 3가지 뉴스 중 자신이 선택하여 더 생각해 보는 활동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 실천 대안을 다양하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미션에서 **디지털 에티켓을 적어볼 때는 각자 손 모양을 가지고 앞으로 꼭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미션 후 여권에 도장을 받을 때는, 도장 소리가 맑다면서 여권에 찍힌 도장을 좋아했고, 비밀의 상자에서 선물이 나타날 때마다, 박수와 큰 기쁨의 웃음을 한껏 보였습니다. 수업 후에 강사님의 사인도 받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마다 선물의 귀엽고 마음에 든다면서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참여해 보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장난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기도 하고, 스스로 방관자이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습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여려 하지 않았던 순간을 새롭게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수업을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학교에 알려주심에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수업이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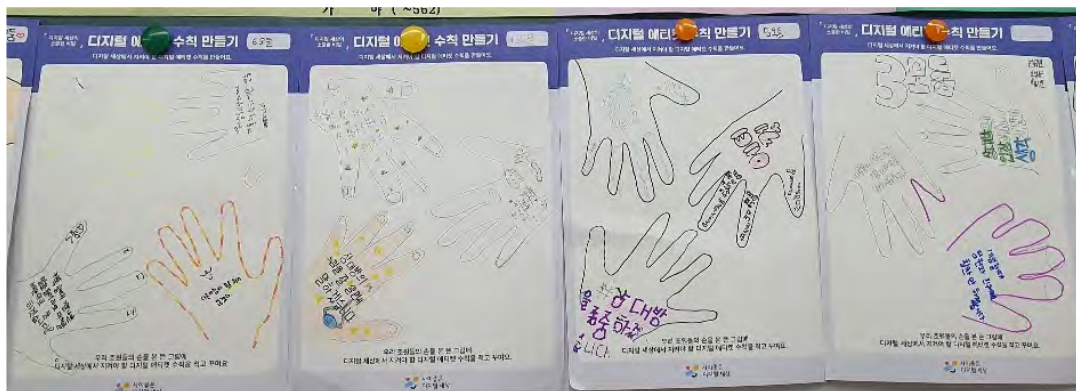
오늘 수업 이후 생생한 후기 바로 남깁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후기를 받아보니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몇 가지 후기를 덧붙이며 고생해 주신 강사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학생 신OO :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좋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여권, 워크북까지 있어 기대됐고 각자 손을 따라 그렸던 디지털 에티켓 수칙 만들기가 재미있었다. 마지막 미션까지 다 하니가 보물 상자를 열어보면서 봤는데 굿즈 포토카드와 젤리, 키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디지털에 대한 것,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것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해보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다.

학생 이OO :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었고 이 수업을 통해 친구와 말을 할 때 서로를 더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졌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과 선생님 말로는 푸른 나무재단이 유퀴즈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신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밀의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 키링과 젤리 등 4가지 선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생 정OO : 사이버 폭력의 특징, 종류들도 배우고 디지털 에티켓이 뭔지도 배웠다. 손 그림 그리기도 있었는데 매우 재밌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대처하는 것도 배웠다. 써먹어야겠다.

마지막에 젤리도 주고 키링도 줬는데 너무 귀엽다. 기분이 매우 좋다!!!!!!



"우리 6학년 1반은 디지털 세상의 어린이 안전지킴이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11월 7일에 우리 양곡초등학교 6학년 1반은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사·디·세)'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중에 먼저 여권과 워크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여행에는 미션이 있는데 모두 참여를 해야 준비하신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벌써 풍선처럼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3교시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할 4가지 규칙인 **분별력, 건강한 온라인 정체성,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푸른나무재단 선생님의 재밌고 활기찬 수업 덕분에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할 규칙 4가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의 실수를 찾아라!'라는 미션인데 크리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찬찬히 살피고 그 행동에 맞는 실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헷갈렸지만, 선생님의 친절함 도움으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똑똑한 크리에이터 SNS 만들기'였습니다. 개인이 아닌 모둠별로 하였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지킬 4가지 규칙에 맞는 게시물을 생각해서 모둠별로 그려 나타내는 활동이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 1모둠부터 6모둠까지 같은 것 하나 없이 각 모둠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난 모습이라서 모두가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께서는 드디어 보물 상자를 열어 푸른나무재단의 마스코트가 매달려있는 키링과 간식 등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뿌듯함에 행복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6학년 1반은 디지털 세상의 어린이 안전지킴이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디·세를 만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비록 8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디지털 세상의 안전에 있어서 박사가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유익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푸른나무재단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전북 전주화정초등학교 6학년 1반 김희진 선생님

"다양한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분별력 있는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수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분별력 있는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수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귀엽고 꿈 꾸는 활동지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말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듣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친절하신 강사님의 설명으로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에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소감 첨부>

학생 김00: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을 받았는데 알지 못한 것을 배워서 좋았다. 첫 번째로 분별력을 배웠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 그다음에 자세히 알지 못했던 건강한 온라인 정체성, 저작권의 뜻도 배웠다. 저작권 표시라는 것을 배웠고 총 5개를 알게 되어 좋았다. 수업하면서 같이 본 워크북, 여권에 있는데 못했던 문제도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생 구00: 이 활동을 하고 저작권을 지켜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법과 나를 위해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도 배웠다. 분별력 있게 기기를 사용하는 법도 어려웠는데 온라인 정체성을 분별력 있게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배워서 좋았다. 이걸로 스마트폰을 해킹당할 일은 없는 것 같다. 나중에 하고 싶은 것 같다.

학생 김00: 디지털 세상에서의 분별력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개인정보의 종류,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저작권 표시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저작권 표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시간이었다.

"열정적인 강의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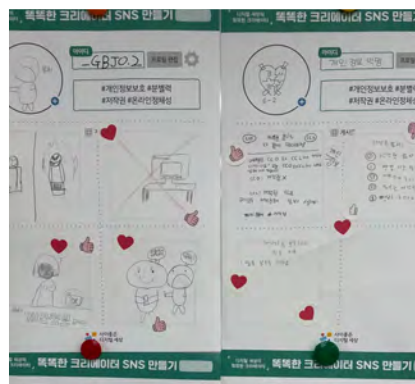
6학년 실과의 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보호 교육과 연계한 수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수업 전에도 사전 안내를 잘 해주시고 당일에도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학급 내에서 더 가르쳤으면 하는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미리 물어봐 주시는 열정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습지와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해주시고, 두 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배우고 모둠 활동을 통해 실습도 해보며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분별력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학교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예방 방법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학급에 크리에이터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건강한 온라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까지 된 수업이었습니다. SNS에 관심이 많은 고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업이 좋았고, 비밀의 상자 선물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신청하고 싶습니다 :)



+ 전북 전주자연초등학교 6학년 6반 오영원 선생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 모두 배우고 성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은 '디지털 세상의 똑똑한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특별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온라인 정체성이라는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 사례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수업 후 한 학생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더 신중히 행동해야겠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 순간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룬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무심코 사용했던 자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창작물임을 깨닫는 순간이 돋보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세상에서의 책임감을 스스로 되새기게 했고, 이로 인해 눈빛에는 변화와 가능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준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그 첫 걸음이었고, 그 씨앗은 곧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감동과 책임감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뜻깊은 강의를 선사해 주신 강사님과 프로그램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이런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